

2000년 연도표기 추진현황

공공부문의 대책반은 한국전산원에 두고 거기에 자문위원회, 주전산기협의회, 다기능사무기기협의회, 소프트웨어협의회, 그리고 각부처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다.

송 관 호 한국전산원 본부장

공공부문의 대책반은 한국전산원에 두고 거기에 자문위원회, 주전산기협의회, 다기능사무기기협의회, 소프트웨어협의회, 그리고 각부처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다.

민간부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2000년 연도표기 문제 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사/연구분과와 홍보/협력분과를 두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2000년대의 문제에서 문제해결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식 및 자원의 조사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에 약하다.

그 문제가 터지면 인식하고 자원조사문제가 중요하다. 울초에 전부나 공공기관에 정보자원센서스를 조사하여 조사표를 정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보내서 2000문제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응용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현재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다. 자원조사뒤에 영향평가, 프로그래밍, 검증, 시험운영의 단계를 거쳐 가는데 2000년까지만 해도 얼마남지 않고, 시간이 없다.

| | 공 공 부 문 | 민 간 부 문 |
|------------------|---|----------------------------------|
| 추 진 경 위 | '96. 8. : 2000년 연도문제에 대한 검토(정통부, 총무처) | '97. 2. 20 : 정보통신 15개업체 실무자회의 |
| | '96. 9. : 구감시 정부대책 질의(통신과학기술위원회) | '97. 3. 11 : 대책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 |
| | '97. 2. 21 : 대책반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정통부, 총무처, 재경원, 전산원) | '97. 4~5 : 조사·연구분과 제 1~3차회의 |
| | '97. 2. 28 : 설명회 개최(정통부 주관 전 부처) | '97. 4~5 : 홍보·협력분과 제 1~6차회의 |
| | 97. 2. 26 - 28 : 정보시스템 실사 실시(6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 | |
| | '97. 2. : 대책반 구성 완료 | |
| | '97. 3. 4 : 부/처/청별 대책반 구성·운영 요청(정통부) | |
| | '97. 3. 13 : 예산산정 지침 작성(전산원→정통부, 재경원) | |
| | '97. 3. 21 : 정보시스템 관련 협의회 구성(주전산기, 다기능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 |
| | '97. 4. 15 : 1차협의회 개최 | |

첫째는 하반기에는 일할 사람도 없고 내년에는 이를 해야하고 내후년에는 시험운영을 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하므로 시간이 너무 없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이런 단계별로 시간 투입비율하고 투입비용비율하고 살펴보면 인식 자원조사가 17%이며,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프로그래밍, 시험운영이다.

역산을 해서 2000년 1월 1일 전에 생각한다면 프로그램 시험운영은 한 1년정도 해야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 투입비용의 비율을 보면 프로그래밍이 한 30%되고, 검증시험운영의 비율이 크다. 수요공급의 비율을 보면 98, 99년밖에 안남았는데, 현재 기술자 공급의 사이드를 보면 거의 변함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해결비용이나 기술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현재 이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턱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도라든지 필리핀에서 사람을 수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해결비용하고 기술자수용이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2000년까지 해결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진 전략을 이것들이 홍보의 인식하고 톱메니지먼트의 인식의 문제이다.

현업의 사람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적어서 윗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정부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한시적인 문제 때문에 설득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두번째, 민간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툴들이 2천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점사항으로는 일단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이버 포럼도 열고 관련자들이 서로 모여서 대안들도 마련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웹페이지도 만들어서 며칠전에 개통하였고, 현황과 약 및 분석이 주요한데 올해에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빨리 선정해서 각 부처별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파악하여 내년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전산원은 예산 산정 지침을 개발하여 이것을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문제이다. 각 부처들이 2천년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냐하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은 연도표기에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인증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2000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자격증을 주는 그런 인증제도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정통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시범변환을 하겠다. 왜냐하면 정부와 같은 기관에서 톱메니지먼트, 높은 사람들의 인식제거를 위해서 이주 가시적이고, 그것들의 문제가 피부에 와 닿을 시범 응용서비스를 발굴해서 이를 올해 6월부터 변환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변환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의 공공부문 대책반에서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소는 <http://Y2000.nca.or.kr>로 오시면 2000년 문제에 대한 모든 솔루션이 들어 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어떤 솔루션도 링크할 수 있고, 의견을 줘도 되며 2000년 문제는 단순히 웹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여론 광장이나 사이버포럼, 전자메일 전송을 전산원의 웹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통일은 5월 6일이다.

여기에는 새소식, 소개, 현황 및 분석, 해결방안에 대한 각종 지침, 관련 사이트, 여론 광장, 문의사항 등이 소개되어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초단위로 경고를 주는 걸로 만들어졌다.

서로 사이버포럼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새소식란에는 최신 정보, 킴포런스, 각종 소개 문항이 있고, 소개란에는 동향사례에 대한 소개, 2000년 대책반,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2000년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을 예를 들어 2000년 문제의 개요 및 예상문제 시나리오,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고, 민간부문은 현재 구축중에 있다. 다른 것들은 다되어 있고, 시스템별 문제 및 해결상황, 표준정보 및 현황, 그리고 인 증필요성 및 현황은 구축중이다.

해결방안 수립에서는 기술적인 해결방안, 계획수립, 지침, 변환 지침, 예산산정 지침 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산정 지침 등이 나와 있다. 3월에 재경원에 쬐서 각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산정지침을 협의해서 각 부처에 배포한 바 있다. 관련 사이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업체들의 소개도 있다.

이것들을 링크를 해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관련 사이트 소개가 들어가 있다.

여론 광장에서는 서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의사항은 이름, 회사명 이런것들을 써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이 바로 올 수 있게 해놓았다. 웹을 많이 활용해주시 바란다.

인식확산상의 세미나는 이번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3회, 지방순회를 4회해서 인식확산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언론을 통한 홍보,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응용소프트 협의

회를 구성해서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에 따라서 문제의 현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으로 있다. 이것이 올해의 아웃풋이 되겠다.

전산원이 현황파악을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총무처하고 협조해서 각 부처별로 설문지를 보내고 그것을 취합을 했다. 현재 행정전산망에서는 32개 부처 연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995년말 기준으로 총 3500만 스템을 외주 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10개기관, 자체 수용이 8개기관,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중이 10개기관, 미정인데가 1개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금융망에서는 금융결제원하고 각 은행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시스템에서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육망이든지, 연구망, 금융망, 국방망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총부처,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같이 자체 대책반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97년 4월 정보자원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주전산기 분야는 공공부분에서 여러종류의 컴퓨터를 많이 쓴다. 업체별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은 그건 공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책을 수립중이지만 예전에 쓰던 것이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응용소프트웨어는 단시간에 나올 것이 아니라서 분석중이다. 이런 것들을 즉각즉각 분석한 결과를 웹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전산원이 상반기에 각 정부부처나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정보자원센서스를 조사했다. 그 정보자원센서스를 2000년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조

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분석중이다.

기관별로 재경원에 예산 요청한 자료를 수집중이고 기관별 기본 계획수립결과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이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올해에 아웃풋을 내놓으려고 한다. 예산산정 지침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으로 만들어서 전산원의 웹사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전적인 위탁 용역인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하는지 하고, 둘째 방안은 문제가 있는 업무만 위탁하는 경우, 세번째 방안은 문제코드만 외부위탁 용역하는 경우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세가지 방안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였다. 적용범위는 순수한 연도문제 해결을 위한 SW변환과 DB변환하고 이 두가지에 대한 범위로 했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행정전산방안의 3500만스텝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탁용역을 줄 경우에 우리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용을 해보면 약 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 개발 문제는 현황조사 및 경영층 인식을 확보하고 영향평가, 프로그래밍, 검증계획수립 및 검증, 시험운영, 전체적인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서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개발하려하고 있다.

연도표기 표준의 적용의 문제는 국제표준에서는 ANSI(미국표준협회, 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로 연도표기에 대한 표준이 나와있고, 미국의 NIST같은 데에서도 FIPS를 만들어서 연방정부표준에서는 연방정부에서는 네자리 숫자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것이 88년에 나온 표준인오 88년에 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강력한 표준을 만들어서 드라이어브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표준을 빨리 제정해서 그 정부나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네자리 숫자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지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빨리 작업을 할까 한다.

국내에는 현재 KS식 5610의 91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시간 및 표시 일자의 표기에 대한 게 나오는 데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만이 나오고 연도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없다. 그 문제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할까 생각한다.

국내의 표준 적용에 대한 검토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 또 정부기기 구매에 대해서는 연도 관련 자격설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도문제 관련 인증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관한테 자격증을 주는 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대책반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까 생각중이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시범변환이다.

2000년 문제가 무엇인지를 워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한 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6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이게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부문의 것으로 골라 보자는 것이다.

이것도 웹사이트에서 여론광장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을 해서 거기에서 찾아 볼까 한다. 거기서 찾아서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범변환을 추진하려 한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범변환은 전산원에서 올해에 실제 가시적으로 보여줄까 한다.

민간부문의 추진 내용은 세미나 등 각종 홍보활동, 연도표기문제에 대한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각종 전시회 개최를 지원한다. 2000년대 추진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크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만이 느끼고 다른 부처나 톱메니지먼트들한테는 인식의 문제가 확산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흔들리더라도 우리 기술자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해서 시범변환이나 현황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전산원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겠다. ●